

요즘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물결이나, 핵시설에 대한 근본적 반성,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각성, 교육, 문화, 경제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변화를 외치고 있다. 이것은 아무래도 사회 병적 현상이라고 보다는 가치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치체계의 변화는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많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충족을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삶의 질에 관련된 기본적인 보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방법이나 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변화는 바로 다양한 욕구들이 사회의 각층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Abraham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에서부터 조직화된 환경에 속하려는 안전욕구, 인생의 동반자와 가족이나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갈망인 애정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랑하려는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으로 자존감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앞에 열거된 욕구들이 충분히 만족되면, 자아실현의 욕



**불자 세상보기**

최종석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조화와 변화의 지혜**

구(self-actualization need)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는 병렬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에서부터 충족도에 따라 높은 단계로 성장해간다고 했다. 만약에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높은 단계의 욕구는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미 충족된 욕구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슬로의 욕구이론에 따르면 각 나라마다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따라 욕구도 다르며 충족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한다. 어떤 나라는 생리적 욕구가 강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는

반면 어떤 나라는 안전의 욕구가 강해서 안전의 욕구충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투자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나라일수록 사회, 경제적 발전이 더 질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변혁이나 사회개혁이나 하는 것은 바로 이 욕구의 강력한 사회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욕구들이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또는 자기중심적으로 표출되면 사회 구성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화를 깨는 일이 된다.

<육중중생경>에 이런 비유가 있다. "어떤 사람이 여섯가지 증생을 얻었다. 개, 새, 독사, 여

우, 물개 그리고 원숭이를 얻었다. 그는 이 증생을 한 곳에 매어두었다. 그러자 개는 마물로 가려하고, 새는 허공으로 날아가려고 하고, 뱀은 늘 구멍으로 들어가고려고 하고, 여우는 무덤 사이로 가려하고, 물개는 바다로 가려하고, 원숭이는 산으로 가려고 한다. 이 증생들은 서로 즐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편안한 곳으로 가기를 희망하여 서로 즐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각기 힘을 다하여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의 욕구를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여섯가지 감각기관이 서로 제각기 즐기는 경계를 구하고 다른 경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인간의 욕구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에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불자가 바라보는 변화하는 세상은 욕구들의 전지로 보일 것이다. 이 전지가 잘 진행되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려면, 여섯 증생을 기중에 분별하게 매어 두는 것처럼, 욕구와 욕구에서 중도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혜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이 제9회 포교사교사를 끝내고 이번에 또 349명의 포교사를 배출했다. 이번 포교사교사에는 공무원, 군 장성, 교사출신 등이 대거 합격했다. 지원자들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지역별, 계층별 분포가 다양해짐으로써 포교의 전방위활동이 기대되고 있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조계종이 1982년 3월 포교사를 배출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4700여명의 포교사가 양성되었으며, 포교사교사를 통해 배출된 유자격 포교사만 해도 국제포교사를 포함해 2000여명이 넘는다.

풀이해보면 현대 한국불교는 6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을 비구·대체 분규와 종단 내부갈등에 휩싸여 종교로서의 주요 본분사인 포교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게다가 포교와 포교사에 대한 경시풍조는 타종교의 적극적인 선교활동과는 대조적으로 불교인들의 포교의지를 위축시켜 왔던 게 사실이었다.

**포교사 활용 대책 시급**

그러나 조계종이 뒤늦게나마 포교사 제도를 입법화하고 포교원을 설립해 적극적인 포교활동에 나서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실로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포교사들도 지난 99년 1월 자체적으로 포교사단을 구성해 현재 전국 6개 지역 90개 포교활동팀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지역운영위원회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포교는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포교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일만 지양해 포교사가 본인의 서원과 능력을 펼쳐나갈 장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단면과제다.

어떻게 따낸 포교사 자격증을 장롱 속에 묵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겨우 명함대용으로 밖에 쓰지 못하는 포교사들이 아직도 부지기수다. 이제는 포교사의 종단적 활용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무원이나 본사 차원에서 상임포교사 배치를 제도화하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포교사를 열성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활동케 하는 원동력과 동시에 결국 포교를 활성화하여 불교의 저변을 확대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도수(본지 논설위원)



**이렇게 들었다** 슬뚜경 리더십

남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거나 비난을 퍼부을지라도 큰 집의 기동처럼 흔들리지 않고, 애욕을 떠나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리는 이, 어린 이들은 그를 성자로 여긴다.

〈수타니파타〉

가마솥 밥이 맛있다는 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경험으로 안다. 그런데 그 까닭은 '어머니의 손맛'처럼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 무엇이 아니다. 최근 밝혀진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마솥 밥맛의 비결은 솥뚜껑에 있다고 한다. 외양에서 느껴지는 것과 달리 솥뚜껑의 무게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묵직한 솥뚜껑이 솥 안에 열을 잘 고루 분산시키면서 최고의 밥맛을 만들어 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가장 맛있는 밥은? 당연히 냄비 밥이다. 기압이 낮은 고지대에서 밥이 잘 안되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해를 넘겨서도 또 무수한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해, '막 가지는 것이지요'에서 '대통령 못 해 먹겠다'를 넘어 '재신입'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소강 국면을 맞았는지 모르나, 선거운동 시비로 또 말들이 많다. 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솔직하다'에서 '경박하다'까지, 어느 쪽이 더 온당한 평가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신중하지 못한 언사를 보아도 '솔직'을 부적처럼 여기는 것은, 솔직이라는 말에 담긴 미덕의 상당 부분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솔직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이해될 거라는 식이면, '에·의·염·치'는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야 할 패력이 된다.

솥뚜껑은 묵직함으로 최고의 밥맛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뜬이 다 들었을 때, 비로소 입을 연다. 솥뚜껑의 리더십이다.

■윤재학(아동문학자 / 본지 논설위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무기수에 도움 손길을**

무안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불자다. 이 곳에는 교도소 밖에 연고가 없는 무기수가 몇 사람 있다. 이 무기수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가 없어, 외와와는 완전 단절된 채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를 보면서, 신문사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님이나 불자를 소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다. 무연고 무기수들은 교도소 안에서 외로움과 아픈 가슴을 달래며 편지를 쓰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이 곳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도소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보니 필요한 것이 많다. 생필품에서부터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한 자료까지 필요한 것만 큼이나 부족한 것이 많다. 무연고 무기수들은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밖에 가족이 없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무안 교도소 불교방에 나오는 재소자들은 불교 공부할 시간이 많지만, 불교 서적과 경전에 굶주려 있다. 신문사나 신문을 보는 스님, 불자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불자들의 작은 정성이 교도소 재소자들에게는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이용춘(무안군 일로읍)

**사리에 집착하지 말자**

지난해에는 불교계 스승이신 큰스님들이 연이어 열반하시며 한 해가 마무리 됐다. 큰스님들의 대기가 끝나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세간에서는 스님들의 사리에 관심이 쏟아졌다. 어느 스님은 몇 파가 나왔고, 또 어느 스님은 몇 파가 나왔는지 하는 이야기가 불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과거 성철 스님께서 열반하신 후, 오랜 기간 수행한 어느 보살에게서도 수많은 사리가 나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인간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탄산칼슘이 주 성분인 뼈는 모두 가루가 되고 재가 되지만, 많은 스님에게서 '정골'이라는 사리가 수습된다고 알려져 있다. 의학적으로는 사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다비 후 수습되는 스님의 사리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심지어는 사리의 양과 질이 스님의 법력과 수행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런 일을 보면서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불자들 먼저 스님의 사리에 대한 세속적 흥미위주의 관심을 버려야. 그래도 사리의 신비로움에 대한 미련이 남거나, 아직도 깨달음의 신물이라고 믿고 있다면, 사리가 나오는 불자가 되도록 스스로 수행정진 해보자.

이국희(부천시 중동)

**독자의 시**

고요 4

하늘 날듯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의 머리 처마

스님은  
겨울 내내  
문을 닫고  
무엇을 하였을까.

적직한 트랙에  
조용히 피어나는  
매화꽃봉오리

아하  
이제사  
알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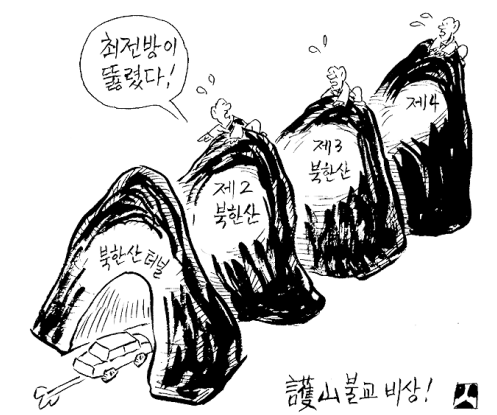
머언산  
눈 녹듯이

숨어드는  
졸음.

박용열(속초시 조양동)

**'연대' 민명**

심민섭



護山 불교 비상!



**국내최대 오가피 재매자 성광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통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통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매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통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베개

**02)447-5300**

**하기척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가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중주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가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기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기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기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기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기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가내용**

- ① 영기천도의 의미와 영기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기들의 영향력!
- ③ 영기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기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천축, 연축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기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기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야간 : 0311706-3060